'불장'에 지난달 거래대금 4조8626억원 몰렸다

전월 대비 38.7% 증가…코스피만 3조3925억원 한국전력 주도 광주·전남 시가총액 4조1031억↑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선 지난 10월 광주·전남지역의 주식 조1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대금이 전월보다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상장법인의 9월 시가총액도 4 11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내놓은 '2025년 10월 광주·전남지역 상장

상장법인(38개사)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 비 12.5% (4조1031억원) 증가한 37조58 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16개사의 시가총액은 전월 대비 했다. 13.0% (4조289억원) 증가한35조670억원 이었다.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이 전월 대비 4조1728억원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코스닥 상장 22개사의 시가총액은 전월

지역 내 상장법인 38개사의 시가 총액

광주·전남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전월 대비 38.7%(1조3562억원) 증가한 4조 332억원(53억원↑) 순이었다. 8626억원에 달했다.

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내 대비 4.0%(742억원) 늘어난 1조9388억 전월 대비 60.8% 늘었다. 코스닥은 1조 ↑), 그린생명과학 617억원(95억원↑) 4701억원으로 5.3% 증가했다.

> 지난달 기준 코스피 사장법인의 시가총 비중은 국내 전체의 1.0%로 전월과 동일 액 증가액 상위 3개 종목은 한국전력 27조 코스피는 다이나믹디자인 (19.1%), 한국 3156억원(4조1728억원↑), 한전KPS2조 2815억원(1373억원↑), 다이나믹디자인

코스닥은 오이솔루션 1589억원(511억 나타났다. 시장별로 코스피는 3조3925억원으로 원↑), 에스오에스랩 2060억원(281억원

드라이버-팀 부문 '챔피언 2연패' 달성

타이어 제조사 챔피언십 2년 연속 정상

순으로 확인됐다.

시가총액 증가율 상위 3개 종목의 경우 전력(18.0%), 한전KPS(6.4%)였고, 코 스닥은 오이솔루션(47.4%), 서산 (18.5%), 그린생명과학(18.2%) 순으로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금호타이어, '현대N페스티벌 eN1클래스' 3관왕

금호타이어(대표이사정일택)가후원 하고, 신영학 감독이 이끄는 금호 SL모 터스포츠팀이 최근 경기도 용인 에버랜 드 스피드웨이에서 펼쳐진 2025 현대N 페스티벌 eN1 클래스에서 드라이버, 팀, 타이어 제조사 통합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다.

금호 SL모터스포츠팀 이창욱 선수는 5라운드 결승에서 치열한 순위 다툼 끝 에 2위로 결승선을 통과, 누적 포인트 223점으로 종합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올 시즌 6차례 레이스 중 3승을 거두며 독보적인 경기력을 과시해온 이창욱은 생애 첫 'eN1' 드라이버 챔피언에 등극 했다. 또 같은 팀의 노동기 선수는 5라운 드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최종 라운드에서도 3위를 기록하며 종합



금호타이어가 후원하고, 신영학 감독이 이끄는 금호 SL모터스포츠팀이 최근 열린 2025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에서 드라이버, 팀, 타이어 제조사 통합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다.

팀은 '드라이버 챔피언'과 '팀 챔피언' 문 2연패를 달성했다.

을 모두 거머쥐며 지난해에 이어 '팀' 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

또 금호타이어가 2025 타이어 제조사 상에 올랐다. 타이어 제조사 챔피언십은 챔피언십을 차지하며 역시 2년 연속 정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에 출전하는

타이어 제조사별 선수가 매 라운드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합산해 최종적으로 가 증 높은 점수를 획득한 타이어 제조사에

게 시즌 챔피언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금호타이어는 최종 6라운드에서 시즌 합산 337포인트를 기록하며 경쟁 타이어 제조사보다 76포인트 앞섰다.

금호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 이어 '이노뷔(EnnoV)'는 고속 주행 중 에도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제공하며 전기차의 드라이빙 퍼 포먼스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김영진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 전 무는 "우선 팀 종합 우승의 쾌거를 이룬 금호 SL모터스포츠팀과 개인전에서 종 합 챔피언을 차지한 이창욱 선수 모두에 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한 다"며 "금호타이어는 앞으로도 대한민 국 대표 고성능 브랜드로서의 역할과 책 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양상의, 제4회 기업사랑 시민한마음대회 개최

지역발전 기여 기업인 표창 "광양 새로운 100년 도약"

광양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제4회 기업 인의 날 기념 '기업사랑 시민 한마음 대 회'가 지난 10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 렸다.

이날 행사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 장, 기관단체장과 상공인 등 5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려 기업인들의 뜨 거운 우의를 다졌다.

기업사랑 시민 한마음 대회는 한국창의 예술고 학생들과 광양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 축사, 우수기업 인•기업사랑 시민 포상, 승합차량 전달식,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탁식, 영상 상영,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양시 수상했다. 기업인의 날은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도시 광양의 시작이며 미래 비전을 다 집하는 중요한 기념일이다"며 "한마음 대 회를 통해 기업의 가치와 노동의 존엄을 마음에 새기고 시민과 함께 광양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제4회 기업인의 날 기념 '기업사랑 시민 한마음 대회'가 지난 10일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스코광양제철소 차장이 '광양시 최고근로 인상', 박종명 한국노총 광양연합노조 동 경포럼 대표가 수상했다. 후지부 위원장이 '광양시 산업평화상'을

또 김영조㈜혜성티앤시 대표가 '국회의 원 포상', 탁관규 EEW KHPC 대표가 '여 수광양항만공사감사패', 엄기천㈜포스코 퓨처엠 대표이사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 역청 감사패'를 수상했다.

과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게 수

한마음대회에서는 권순용 ㈜현대소방 여하는 '광양상공대상'은 OCI㈜ 김유신 대 대표가 '광양시 최고경영인상', 최준길 포 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헌신한 '기업사랑 시민 대상'은 허형채 광양만환

> 우광일 회장이 사재 4000만원(스타리 아)을 출연해 구입한 승합차량은 범죄 예 방과 방범활동 지원을 위해 광양시 여성자 율방범대에 전달됐다.

이번 한마음대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 제 교차 기탁식도 진행, 나주영 포항상공 회의소 회장이 직접 참석해 13개 회원사가 광양상공회의소가 기업의 경쟁력 향상 모금한 9200만원을 광양시에 전달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광양경제청, 중국 허마이허다그룹과 투자협력 강화

궁정 회장 초청…"광양만권 생산 제품 진출 확대"

국 최대 글로벌 생활건강용품 유통기업 인 허마이허다그룹 궁정 회장을 초청해 중국시장 판로확대와 투자협력 방안을 논 지난 9월 중국 광저우에서 진행된 해외 투 으로 더 널리 진출해 상생의 이익이 창출

매장에 1000여종의 제품을 공급하는 글 담을 진행했다. 로벌 유통기업으로 광양만권에 입주한 킹 궁정 회장은 "광양경제청의 적극적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중 톱스에 직접 지분 투자해 제품을 생산하 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고 있다.

이번 허마이허다그룹의 경제청 방문은 자유치활동의 후속 조치로 당시 경제청은 되길 기대한다"며 "광양만권은 원료 수 허마이허다그룹은 유럽, 미국, 한국 등 지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공동 에서 샴푸, 세제, 바디워시, 티슈 등 생활 투자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궁정 회장 건강·위생용품을 수입해 중국 4만여개 이 광양만권을 직접 방문해 P사와 수출상

지원 덕분에 지분 투자한 킹톱스가 안정적 으로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에 P사와 수출상담 기회를 마련해주신 점

구충곤 경제청장은 "광양만권에서 생 산된 우수한 생활건강용품이 중국 시장 급과 물류 접근성이 뛰어난 투자 최적지 인 만큼 앞으로도 투자기업이 불편함 없 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iin@gwangnam.co.kr